

WEBVTT

00:00:32.012 --> 00:00:35.351

안녕하세요?

GSEEK의 임영주입니다.

00:00:35.499 --> 00:00:40.927

우리나라 부모님들, 아이가 태어나면
한결같이 하는 말씀 있었죠?

00:00:40.952 --> 00:00:42.578

건강하게만 자라다오.

00:00:42.603 --> 00:00:46.191

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
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것만으로도

00:00:46.216 --> 00:00:48.261

너무 감동을 했었는데요.

00:00:48.462 --> 00:00:53.945

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께서
건강하게만 자라다오에서

00:00:53.995 --> 00:00:57.050

바라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.

00:00:57.075 --> 00:01:01.035

빨리 말문이 트였으면,
빨리 말을 배웠으면,

00:01:01.060 --> 00:01:03.203

친구랑 잘 지냈으면,

00:01:03.228 --> 00:01:07.011

당연히 공부를 잘했으면 등등
많아지죠.

00:01:07.243 --> 00:01:10.390

이렇게 아이에 대한
많은 바람 중에서도

00:01:10.415 --> 00:01:13.715

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이
바라는 게 있을 텐데요.

00:01:13.896 --> 00:01:19.687

바로 내 아이가 사회성이
좋았으면 하는 걸 겁니다.

00:01:20.204 --> 00:01:25.875

요즘 여전히 사회성과 인성에 대해서
강조되고 있는데요.

00:01:25.900 --> 00:01:31.109

제가 부모님들과 현장에서 만나
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다 보면

00:01:31.134 --> 00:01:34.335

우리 아이가 친구들과

잘 어울리지 못하고

00:01:34.360 --> 00:01:38.300
진짜 소극적이어서 걱정이예요라는
말 많이 듣습니다.

00:01:38.325 --> 00:01:45.019
또 초등학교 공개 수업 가 보면
부모님들의 표정이 이렇게 나뉘니다.

00:01:45.295 --> 00:01:49.070
아이가 손이라도 번쩍 들고
씩씩하게 발표하면

00:01:49.095 --> 00:01:52.187
그날 엄마의 얼굴은
굉장히 화사해지죠.

00:01:52.426 --> 00:01:54.941
2학년 때도 그러더니
애가 3학년 돼서도

00:01:54.966 --> 00:01:56.816
여전히 발표력이 없어.

00:01:56.841 --> 00:02:00.000
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02:00.083 --> 00:02:01.249
선생님, 큰일이에요.

00:02:01.274 --> 00:02:04.574
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
사회성이 없을까요?

00:02:04.599 --> 00:02:07.792
그런데 과연 발표력, 사교성

00:02:07.817 --> 00:02:11.503
이런 것들이 아이의 사회성의
전부일까요?

00:02:11.760 --> 00:02:14.843
오늘은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
알아보고요.

00:02:14.868 --> 00:02:18.593
기르는 교육법에 대해서
알아보려고 합니다.

00:02:19.165 --> 00:02:22.226
부모님, 사회성이라는 게
도대체 뭘까요?

00:02:22.251 --> 00:02:24.414
사전적 의미로 들어가 볼까요?

00:02:24.439 --> 00:02:25.917
그런데 굉장히 길어요.

00:02:25.942 --> 00:02:28.710

좀 간단하게 제가
정리를 해 봤습니다.

00:02:28.735 --> 00:02:34.042

나한테만 맞추려는 게 아니라
나도 남에게 맞춰주는 것,

00:02:34.067 --> 00:02:37.890

즉 나와 타인이 함께
잘 살아가는 능력

00:02:37.915 --> 00:02:40.312

이것이 바로 사회성이거든요.

00:02:40.337 --> 00:02:42.890

그렇다면 과연 이게 발표를
잘하는 것은

00:02:42.915 --> 00:02:46.406

아닐 것 같다는 짐작 드시죠?

00:02:46.588 --> 00:02:48.496

맞습니다.
그런데요.

00:02:48.521 --> 00:02:54.785

영아기 때, 유아기 때 아이들이
나도 좋고 남한테도 맞춘다?

00:02:54.810 --> 00:02:57.441

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.

00:02:57.466 --> 00:03:04.238

사회성도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
배우는 발달 과정 중 하나거든요.

00:03:04.263 --> 00:03:06.816

모든 발달이 그렇듯 사회성도

00:03:06.841 --> 00:03:11.230

나이에 따라, 발달에 따라
수준이 있습니다.

00:03:12.220 --> 00:03:14.003

이렇게 궁금해하세요.

00:03:14.028 --> 00:03:17.328

선생님, 사회성은 타고나는 건가요?

00:03:17.418 --> 00:03:21.367

네, 일정 부분은
사회성도 타고납니다.

00:03:21.392 --> 00:03:23.964

우리가 기질이 있고
성격이 있잖아요.

00:03:23.989 --> 00:03:28.925

그런데 사회성은 타고난 것과
아울러서

00:03:28.950 --> 00:03:33.632

부모님들의 육아 환경이
굉장히 중요한데요.

00:03:33.657 --> 00:03:37.480

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성을
들어보면

00:03:37.505 --> 00:03:40.805

굉장히 이상적이고 수준이 높습니다.

00:03:41.429 --> 00:03:44.824

엄마들이 생각하는 사회성,
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?

00:03:45.326 --> 00:03:46.875

어른들 만나요.

00:03:46.900 --> 00:03:49.550

안녕하세요?
인사하고요.

00:03:49.575 --> 00:03:50.664

친구들 만나요.

00:03:50.689 --> 00:03:53.989

안녕? 나 누구야.
사이좋게 놀자.

00:03:54.014 --> 00:03:57.773

그것도 굉장히 썩썩하고
밝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.

00:03:57.798 --> 00:03:59.218

그뿐 아니에요.

00:03:59.243 --> 00:04:02.304

친구랑 노는 동안에도 잘 놀고요.

00:04:02.329 --> 00:04:07.148

양보할 때 양보하고 또 본인 거
챙겨야 할 때는 또 잘 챙기고

00:04:07.173 --> 00:04:10.839

갈등이 생겼습니다.
그럴 때는 또 말로 잘 풀어 나가요.

00:04:10.864 --> 00:04:16.757

그러면서 아이도 상대방도
만족했으면 한다는 건데요.

00:04:17.240 --> 00:04:20.117

여러분, 주변 둘러보세요.

00:04:20.923 --> 00:04:25.675

이런 사회성 가진 사람은
어른 중에도 아주 드뭅니다.

00:04:25.856 --> 00:04:28.967

그런데 우리 영아기나

유아기 아이들에게

00:04:28.992 --> 00:04:33.752

이런 사회성을 기대한다는 건
말 그대로 무리인 거죠.

00:04:33.952 --> 00:04:37.092

인지 발달 수준에서
1 더하기 1은 2야.

00:04:37.117 --> 00:04:42.326

이런 아이에게 나눗셈을 기대하는 거나
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?

00:04:42.665 --> 00:04:46.928

당장 우리 어른들의 세계를
한번 살펴보세요.

00:04:46.953 --> 00:04:49.963

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

00:04:49.988 --> 00:04:54.431

어른들도 갖기 힘든 사회성을
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말고요.

00:04:54.456 --> 00:05:00.550

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발달시킨다면
발달 과정과 아이의 성격에 맞춰서

00:05:00.575 --> 00:05:05.861

부모님의 육아 환경을
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05:06.212 --> 00:05:10.385

그렇다면 사회성과 성격에 관한 건데

00:05:10.410 --> 00:05:14.572

아이가 외적으로 표현을
잘하는 것에만 비중을 두면

00:05:14.597 --> 00:05:19.748

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의
사회성은 발달할 수 없습니다.

00:05:20.046 --> 00:05:22.580

내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

00:05:22.605 --> 00:05:27.482

내 표현은 잘하지 않지만
자신의 성찰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

00:05:27.507 --> 00:05:29.514

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더

00:05:29.539 --> 00:05:33.205

해결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
아이일 수도 있어요.

00:05:33.230 --> 00:05:35.861

이게 바로 진짜 사회성입니다.

00:05:36.081 --> 00:05:39.826

그러니까 외향성을 가진 아이는
사회성이 좋다,

00:05:39.851 --> 00:05:44.162

내향적인 아이는 사회성이
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

00:05:44.187 --> 00:05:48.517

부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
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

00:05:49.180 --> 00:05:54.142

사회성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
부모님이 아이 성격을 인정하고

00:05:54.167 --> 00:05:57.170

그 상황에 공감해 주는 건데요.

00:05:57.195 --> 00:05:58.771

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?

00:05:59.115 --> 00:06:01.037

아이가 속상해서 울고 있습니다.

00:06:01.062 --> 00:06:06.486

그럴 때 뭐 그런 거 갖고
울고 그래? 라고 하는 이야기는

00:06:06.511 --> 00:06:09.689

아이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
부모님의 이야기지만

00:06:09.714 --> 00:06:13.107

사실은 아이는 자기는 진짜
굉장히 속상해요.

00:06:13.132 --> 00:06:17.150

그리고 다른 표현 방법을 몰라서
그렇게 우는 건데

00:06:17.175 --> 00:06:19.963

엄마는 엄마 기준으로
먼저 교육하니까

00:06:19.988 --> 00:06:21.682

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거야.

00:06:21.707 --> 00:06:24.924

그리고 다음의 행동 기준을
알지 못해서

00:06:24.949 --> 00:06:27.892

반복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.

00:06:27.917 --> 00:06:33.465

사회성도 우리 아이가 자기를
먼저 인정받을 때 발달할 수 있으니까

00:06:33.490 --> 00:06:37.820

우리 엄마가 훈계라는 교육을

먼저 내세우지 말고요.

00:06:37.845 --> 00:06:40.744

속상했어?
또는 눈물이 나? 라면서

00:06:40.769 --> 00:06:43.088

아이의 현 상황을 인정해 주고요.

00:06:43.113 --> 00:06:46.525

마음을 풀어준 다음에
속상한 이유를 알아주고

00:06:46.550 --> 00:06:50.998

엄마는 너의 편이야라고
안심을 했을 때

00:06:51.023 --> 00:06:53.986

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
나가려고 합니다.

00:06:54.011 --> 00:06:56.115

바로 아이에게 힘을 주는 거죠.

00:06:56.140 --> 00:07:01.564

그런 다음에 울음 말고
다른 표현 방법이 있을까라고

00:07:01.589 --> 00:07:02.853

얘기해 보세요.

00:07:02.955 --> 00:07:07.795

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의
바로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요.

00:07:07.820 --> 00:07:11.252

이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
남에게 양보도 하고

00:07:11.277 --> 00:07:13.127

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.

00:07:13.375 --> 00:07:15.607

공간에서 인심 난다는 이야기 있죠?

00:07:15.925 --> 00:07:20.217

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공간이
풍부해야 남에게도 배려하고

00:07:20.242 --> 00:07:23.542

남에게 양보하고 갈등 상황이
생겼을 때도

00:07:23.567 --> 00:07:27.307

말로 현명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
아이가 됩니다.

00:07:27.880 --> 00:07:32.064

사회성은 기질적인 영향도
물론 있습니다.

00:07:32.089 --> 00:07:33.654

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

00:07:33.679 --> 00:07:37.482

양육 환경으로 인해서

발달하기도 하고

00:07:37.522 --> 00:07:40.529

성격이 활발한 아이도

위축되기도 합니다.

00:07:40.554 --> 00:07:43.264

그렇기 때문에 각각 성격이 다른
아이들,

00:07:43.289 --> 00:07:48.068

기질이 다른 아이들의 성향을

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

00:07:48.093 --> 00:07:52.951

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
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00:07:53.347 --> 00:07:58.497

소극적인 아이일수록 사회성 키우기에
정말 부모님의 스킬이 필요한데요.

00:07:58.522 --> 00:08:03.498

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
사회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00:08:03.787 --> 00:08:07.087

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
소극적이면

00:08:07.346 --> 00:08:09.807

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,

00:08:09.832 --> 00:08:13.771

표현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
 좋겠다고 안타까워하는데요.

00:08:13.796 --> 00:08:20.021

소극적이라는 것 자체가
부정적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

00:08:20.119 --> 00:08:24.235

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
왠지 나는 잘 못할 것 같아.

00:08:24.260 --> 00:08:27.267

나는 정말 표현을 잘 못하는
아이야라고

00:08:27.292 --> 00:08:31.193

지금 저의 이 제스처처럼
소극적인 아이가 됩니다.

00:08:31.218 --> 00:08:35.607

소극적이라는 것과 적극적이라는 건
이렇게 차이가 있어요.

00:08:35.632 --> 00:08:38.713

위축되지 않게 아이가
당당할 수 있게 하려는

00:08:38.738 --> 00:08:44.532

부모님의 표현은 잘할 때,
이때를 놓치지 말고 칭찬하는 것

00:08:44.557 --> 00:08:47.857

제가 폭풍 칭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

00:08:47.882 --> 00:08:51.701

제발 독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
우리 아이에게

00:08:51.726 --> 00:08:53.654

아낌없는 칭찬을 하고요.

00:08:53.679 --> 00:08:57.502

그리고 소극적인 아이에게는
인사를 잘할 때

00:08:57.546 --> 00:09:02.131

또 목소리가 작아서 우리 아이
사회성이 부족해 보여라고 할 때는

00:09:02.156 --> 00:09:06.467

우리 아이가 신이 나서
목소리가 클 때, 이때를 놓치지 말고

00:09:06.492 --> 00:09:12.072

우리 아이에게 칭찬을 해 주는 것도
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9:12.875 --> 00:09:19.205

보통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
소극적이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

00:09:19.230 --> 00:09:24.548

제가 들어보면 친구 사귀는 데
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라고

00:09:24.573 --> 00:09:26.838

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00:09:26.863 --> 00:09:30.197

그런데 친구가 많고 친구를
빨리 사귀다고 해서

00:09:30.222 --> 00:09:35.733

과연 사회성이 좋은 아이인가라고
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

00:09:35.758 --> 00:09:37.443
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

00:09:37.468 --> 00:09:40.119

그건 사교성이 좋은 거거든요.

00:09:40.331 --> 00:09:45.080

사람을 사귈 때 신중하게
깊이 사귀는 경우가 있고요.

00:09:45.105 --> 00:09:48.498
빨리 사귀면서 넓게
많이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다.

00:09:48.925 --> 00:09:51.174
그건 사교성의 한 부분이지

00:09:51.199 --> 00:09:54.807
결코 사회성을 가늠하는
잣대는 아닙니다.

00:09:54.832 --> 00:09:58.283
깊이 오래 사귈 수 있는 것은
갈등이 생겼을 때

00:09:58.308 --> 00:10:00.510
잘 풀어 간다는 이야기고요.

00:10:00.535 --> 00:10:04.299
그리고 해결 능력이 뛰어난
사회성이 좋은 아이라는 것도

00:10:04.324 --> 00:10:07.267
우리 부모님께서
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0:10:07.649 --> 00:10:10.275
아이에게 없는 점 찾지 마시고요.

00:10:10.300 --> 00:10:13.459
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을
알아주는 부모가

00:10:13.484 --> 00:10:17.053
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아이로
만듭니다.

00:10:17.078 --> 00:10:19.865
그렇게 되면 아이가
이 자신감을 바탕으로,

00:10:19.890 --> 00:10:24.377
적극성을 바탕으로 해서
사회성을 더 기르게 됩니다.

00:10:35.997 --> 00:10:38.244
우리 부모님이 아이가
학교에 들어가거나

00:10:38.269 --> 00:10:41.310
유치원에 들어갈 때
이런 말씀하시죠?

00:10:41.335 --> 00:10:45.197
사이좋게 놀아, 양보도 하고
선생님 말씀 잘 들어.

00:10:45.222 --> 00:10:49.064

이런 얘기하는데 좋은 말씀이에요,
맞는 이야기고요.

00:10:49.089 --> 00:10:52.834
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
구체적이지 않으세요.

00:10:52.859 --> 00:10:54.807
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.

00:10:54.832 --> 00:10:58.361
그럴 때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
사회성이 좋은 거고

00:10:58.386 --> 00:11:02.463
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고
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인지

00:11:02.488 --> 00:11:04.494
상황극을 하면 좋습니다.

00:11:04.519 --> 00:11:08.908
엄마하고 아이하고 상황을 만들어서
엄마가 아이를 하고

00:11:08.933 --> 00:11:10.900
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하는

00:11:10.925 --> 00:11:13.498
그런 역할 놀이식으로
한번 해 보시겠어요?

00:11:13.523 --> 00:11:15.529
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.

00:11:16.041 --> 00:11:18.537
지금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.

00:11:18.562 --> 00:11:21.779
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걸면
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.

00:11:21.804 --> 00:11:23.571
그러면서 엄마가 먼저 하는 거죠.

00:11:23.693 --> 00:11:26.721
친구야, 안녕?
나 누구야.

00:11:26.746 --> 00:11:30.822
나랑 같이 놀래?
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

00:11:30.847 --> 00:11:33.049
사실 아이가 아이 역할을 하면

00:11:33.074 --> 00:11:35.080
이러한 이야기가
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

00:11:35.105 --> 00:11:36.975

엄마가 먼저 해 주는 거죠.

00:11:37.148 --> 00:11:39.728

그다음에 상황을 또 하나
만들어볼까요?

00:11:39.753 --> 00:11:45.959

함께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
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를

00:11:45.984 --> 00:11:47.892

먼저 제안하는 거예요.

00:11:48.177 --> 00:11:52.873

친구야, 나도 그거 장난감 같이
갖고 놀고 싶은데

00:11:53.246 --> 00:11:56.721

같이 놀 수 있을까라는 것도
한번 연습해 보고요.

00:11:56.746 --> 00:12:01.721

그다음에 친구가 내가 가지고
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갔습니다.

00:12:01.746 --> 00:12:03.517

그럴 때 정말 속상하잖아요.

00:12:03.542 --> 00:12:06.955

그럴 때 성격이 급한 친구는
벌떡 일어나서

00:12:06.980 --> 00:12:08.635

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.

00:12:08.660 --> 00:12:12.189

그럴 때도 방어하는 것
혹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

00:12:12.214 --> 00:12:13.791

한번 연습해 보세요.

00:12:13.816 --> 00:12:17.600

친구야, 나는 네가 이거 그냥
가져가면 속상해.

00:12:17.625 --> 00:12:21.096

같이 놀자, 이렇게 얘기해 줘.
이런 것들이죠.

00:12:21.530 --> 00:12:26.213

여러분,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
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

00:12:26.238 --> 00:12:29.538

아이의 사회성, 정말 근사해집니다.

00:12:29.563 --> 00:12:31.955

또래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

00:12:31.980 --> 00:12:36.799

정말 말이 그 아이의 리더성의
자질을 보여주고 있는데

00:12:36.824 --> 00:12:39.142
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한테는

00:12:39.167 --> 00:12:43.674
같은 나이, 같은 연령의 아이들도
함부로 하지 못해요.

00:12:43.699 --> 00:12:46.076
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주변에는

00:12:46.101 --> 00:12:49.401
인성이 좋은 아이들이
함께하게 됩니다.

00:12:50.100 --> 00:12:52.072
표현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.

00:12:52.097 --> 00:12:55.959
엄마랑 함께 연습을 하면
바로 익히는 아이도 있지만

00:12:55.984 --> 00:12:59.475
그렇지 않은 경우에는
엄마와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

00:12:59.500 --> 00:13:01.603
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.

00:13:01.628 --> 00:13:05.861
자신감은 사회성에 굉장히
주요한 요소입니다.

00:13:05.886 --> 00:13:07.814
외향적인 거하고는 달라요.

00:13:07.839 --> 00:13:11.271
내면에서 자신감이 쑥쑥
올라올 수 있도록

00:13:11.296 --> 00:13:14.596
엄마와 아이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

00:13:14.621 --> 00:13:17.210
부모님의 말씀 한마디, 한마디가
모여서

00:13:17.254 --> 00:13:22.699
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된다는 것
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13:22.899 --> 00:13:26.019
지금까지 GSEEK의
임영주였습니다.